

8월 1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1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 증시, 차익매물..다우 0.3%↓</p>	<p>경기회복 기대감보다 4주 연속 쉽없이 상승한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하여 뉴욕증시가 10일(현지시간) 이익실현 매물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약세로 마감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32.12포인트(0.34%) 하락한 9,337.9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01포인트(0.4%) 떨어진 1,992.24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38포인트(0.33%) 밀린 1,007.1을 각각 기록했음.</p> <p>4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조정 시그널이 부쩍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쳐 뉴욕증시는 약세로 출발했음. 무엇보다 가격부담이 컸음. S&P 500 종목들의 경우에는 평균 주가이익비율(PER)이 18배를 넘어서 2004년 12월 이후 4년래 최고치로 상승한 상황임. 이런 가운데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자산운용 회장이 향후 글로벌 증시가 30% 가량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해 투자심리에 부담을 주었음. 또 미국의 옵션투자자들이 소위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가 향후 5주내 13%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점도 증시 조정의 시그널로 해석되는 모습이었음. 장중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블루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스(BCEI)가 3분기중 리세션이 끝날 것이라는 설문조사를 발표하자, 뉴욕증시는 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음. 그러나 3월 저점대비 50%나 상승한데다, 최근 4주 연속 상승한데 따른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해 뉴욕증시는 결국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음. 주식시장 조정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위축된 반면 `안전자산` 수요는 강화돼 미국채 가격이 반등세를 보였음. 미 달러화도 오름세를 보였고, 이같은 달러가치 상승과 미 증시 조정 여파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며 배럴당 70달러선에서 거래를 마쳤음.</p>
<p>템플턴의 모비우스 "세계증시 30% 조정"</p>	<p>마크 모비우스 템플턴자산운용 회장은 글로벌 주식시장이 향후 30% 가량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음. 그는 "주식시장이 저점 대비 70% 정도 상승할 때는 주식시장이 20~30% 정도는 되떨리게 된다"며 "현재 주식시장이 조정없이 급속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음. 모비우스는 특히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기업공개(IPO)와 채권발행 증가"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주식을 사기 위해 (기존 주식을) 매도할 것이고, 이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음.</p>

제목	주요 내용
"美 리세션 3분기에 끝난다" - BCEI	민간 경제연구기관 블루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스(BCEI)가 발표한 이코노미스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는 이번 분기 중 경기후퇴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음. 다만 응답자들의 3분의 2는 미국 경제가 `U자형`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음. 당분간 잠재성장률을 밀도는 성장세를 기록하다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본격적인 회복이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임. 이에 비해 `V자형` 회복과 `W자형(더블딥)` 회복을 예상한 전문가는 각각 17%에 그쳤고 전문가들은 또 실업률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음.
국제유가 하락..증시조정에 투심 위축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배럴당 70달러선에서 마감했음. 달러강세와 증시 조정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음. 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0.5% 하락한 70.60달러로 마감했음.
한국산 D램 글로벌 점유율 사상 최대	10일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올 1분기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점유율(매출 기준)은 각각 34.1%, 21.4%를 기록해 합계 55.5%를 나타냈음 두 회사의 D램 합산 점유율이 55%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반도체 업계의 '치킨게임'이 한창이던 지난해 1분기 49%를 기록한 이후 2분기 49.8%, 3분기 49.3% 등 줄곧 50% 벽을 넘지 못했음 그러나 지난해 4분기께 D램 업계가 출하량을 크게 줄이는 등 치킨게임이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두 회사의 점유율은 50%를 돌파했음.
쌍용차 협력사 "내일 파산신청 철회..손배소안해"	협동회는 10일 오후 3시부터 평택 송탄공단내 진보공업 임시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의.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파산4부에 `조기파산 신청 요구 철회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그는 특히 "평택공장내 협력업체들의 부품 및 설비의 직접적인 피해액 100억원 등을 포함해 노사 양측을 상대로 낼 예정이었던 모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협동회는 이와함께 쌍용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부품공급을 재개하는 한편,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신차개발계획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